

조선어와 프랑스어에서 태적의미의 대응관계

리 일 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학생들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함께 높은 외국어실력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422페이지)

현시기 프랑스어동사가 표현하는 행동진행성격을 나타내는 태를 조선어와의 대비속에서 옹계 리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소유하는것은 프랑스어학습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행동이 수행되는 순간과 언어행위가 진행되는 순간과의 시간적관계를 나타내는 시간범주와는 달리 태범주는 언어행위의 순간과는 관계없이 행동수행자체의 성격과만 직접 관련되어있는 범주이다. 태의 문법적범주는 명확한 문법적형태를 가지고있는 언어들에서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설정되며 언어에 따라 그것이 문법적범주로 설정되지 않기도 한다.

언어대비견지에서 볼 때 프랑스어와 조선어에서 동사의 태범주표현형식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동사가 나타내는 움직임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것이 아니며 두 언어에서 언어사용방식이 다를뿐이다.

조선어에서 태의 의미는 문법체계로 표현되지 않고 어휘적수단으로 표현되며 동사의 문법적속성으로 되지 않는다. 프랑스어에서도 태의 문법적표식이 동사자체에 있지 않으며 오직 태적의미가 문맥속에서만 명백히 나타난다. 이것은 프랑스어에서는 문맥속에서 시칭의 표식으로서 태적의미 즉 완료태적의미와 미완료태적의미가 갈라져 표현된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어와 프랑스어에서 태의 의미는 문법적범주로 일반화될 정도로 체계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태의 문법적범주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태적의미가 여러가지 형태로 동사에 동반되어 표현된다.

프랑스어동사의 시칭에서는 완료태적의미와 미완료태적의미가 뚜렷이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다른 어휘문법적수법들과 차이나는 프랑스어시칭의 중요특징이다. 이때 완료태적의미는 주로 복합시칭들에 의하여, 미완료태적의미는 단순시칭(단순과거제외)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태적의미의 견지에서 볼 때 프랑스어동사의 시칭체계는 현재에 해당되는 완료시칭과 미완료시칭, 과거에 해당되는 완료시칭과 미완료시칭, 미래에 해당되는 완료시칭과 미완료시칭을 기본축으로 하여 형성되였다.

프랑스어에서 태적의미표현수법에는 시칭과 함께 접사에 의한 태적의미표현수법(실례로 접두사 **pour-**는 행동의 련속성표현), 주어의 수법, 동사반복의 수법, 동사—명사통합의 수법들이 있다. 이러한 수법들은 문맥에서 시칭과 함께 쓰일 때만이 자기의 태적의미가 명백해진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동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태표식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다.

조선어에서 태범주의 의미적대응은 다음과 같다.

미완료태	{	다회태: 흔들거리다, 흔들고있다
		진행태: 흔들고있다, 흔들다, 흔들어대다

완료태: { 시작태: 흔들기 시작하다
종결태: 흔들어치우다, 흔들어버리다

미정태: 흔들었다, 흔들다, 흔들겠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어에서는 동사가 사용될 때 태가 표시될수도 있고 표시되지 않을수도 있다. 조선어의 태적의미는 보조적단어들에 의하여 표현되며 보조적단어들을 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태의 의미도 표현하지 않는 《미정태》가 된다. 《거리다, 있다, 대다, 치우다, 시작하다, 버리다》 등과 같은 단어들은 보조적으로 쓰이면서 자립적으로 쓰인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태적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프랑스어동사의 태적의미표현을 조선어의 보조적단어들과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세우는것은 태연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동사가 가지고있는 고유한 행동성격은 문장에서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다시말하여 완료태적동사라고 하여 모든 문장형태에서 다 완료태적성격을 보존하는것이 아니며 미완료태적동사라고 하여 다 미완료태적성격을 보유하는것이 아니다. 동사의 태적의미는 문장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과 호상작용하면서 새로운 태적의미를 나타내곤 한다.

프랑스어에서 동사의 시칭은 유럽의 다른 언어들보다 태적의미를 훨씬 더 세부적으로 표현한다.

프랑스어에서 시칭은 행동의 결과, 지속, 종결, 결과, 반복 등을 표현한다.

이에 대하여 조선어에서는 보조단어로 표현된다.

프랑스어복합시칭들이 표현하는 완료태적의미는 조선어에서 그것이 필수적이 아니며 태형태의 표식이 없이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문장속에서 태적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례: 《어제 나는 형님에게 편지를 썼다.》(태형태표식이 없음 - 미완료태나 완료태가 다 가능함.)

Hier j'ai écrit la lettre à mon frère.

Hier j'écrivais la lettre à mon frère.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어동사에는 태형태의 표식이 없으므로 문맥적조건이 동사의 태적양태를 규정하지 않으면 조선어동사에 대한 대응시칭은 완료태시칭으로 될수도 있고 미완료태시칭으로 될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프랑스어에서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나타내는 태적의미가 같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어에서 태형태가 없이 과거시칭에서 사용되면서 과거에서 행동의 결과상태와 행동자체가 표현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어에서는 완료태적의미를 표현하는 복합시칭으로 표현된다. 프랑스어에서 복합과거는 과거에서 끝난 행동의 결과상태와 함께 종결을 표현하며 반과거는 과거의 어떤 순간에 행동이 진행되었다는것을 표현한다.

미래시칭에서도 조선어에서는 태형태의 표식이 없이 미완료태나 완료태가 다 가능하게 나타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완료성을 표현하는 동사시칭을 쓰는 경우에는 미래행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며 미완료성동사시칭을 쓰는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이 진행될것이라는것을 예언해준다.

례: 《대학에서 나는 력학을 공부하겠다.》(태형태표식이 없음 - 미완료태나 완료태가 다 가능함.)

Je vais étudier la mécanique à l'Université. (완료태)

J'étudierai la mécanique à l'Université. (미완료태)

프랑스어복합시칭에서 표현되는 완료성의 의미는 조선어의 토나 어휘적수단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실례로 《먹어치우다》, 《먹어버리다》에서의 《치우다》, 《버리다》는 《거두다》, 《포기하다》 등의 뜻과는 인연이 없으며 동사 《먹다》에 보조적으로 붙어 다 끝난 행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어에서는 복합형태의 과거를 사용하며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tout를 첨가할수 있다.

예: J'ai mangé tout. (나는 다 먹어치웠다.)

J'ai lu tout un livre en un jour. (나는 하루에 책 한권을 다 읽어치웠다.)

조선어 《다 먹다》에서 부사 《다》는 행동을 《남기거나 빼놓지 않고 있는대로 모두》 수행함을 나타내어 《종결태》의 태적의미를 동사에 더해준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사를 가진 동사들은 완료태적의미를 표현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어에서도 복합시칭과 함께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인 terminer, achever 등을 리용하여 완료된 행동을 표현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프랑스어에서는 복합시칭 혹은 복합형태를 동반하여야 한다.

예: J'ai l'intention de partir pour un voyage après avoir terminé ce travail.

(나는 이 일을 빨리 해치우고 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L'enfant a achevé de manger en un clin d'œil le bonbon. (아이는 사탕을 게 눈감추듯 다 먹어버렸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어에서 동사 《치우다》는 《아, 어, 여》형의 동사와 결합하여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을 《끝까지 해내다》는 《종결태》의 태적의미를 가진다. 《먹어버리다》에서 동사 《버리다》도 《아, 어, 여》형의 동사와 결합하여 그 동사의 행동이 아주 끝났음을 나타내는 종결의 태적의미를 가진다.

또한 조선어에서는 과거를 표현하는 종결로 《있》을 반복하여 행동의 과거종결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어에서는 과거의 종결을 표현하는 대과거가 대응된다.

예: Il avait lu deux fois ce roman. (그는 이 소설을 두번 읽었었다.)

프랑스어에서 종결적인 태적의미를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jusqu'à la fin, à terme, jusqu'au bout, au prix de sa vie, enfin, définitivement, finalement, totalement, complètement, parfaitement, déjà 등과 같은 상황어에 의거한다.

프랑스어에서 시작태적의미는 완곡적표현구와 대명사의 수법으로 표현된다. 완곡적인 표현수법으로는 《aller + 미정형》, 《se mettre (remettre)à + 미정형》, 《commencer (recommencer)à + 미정형》이 사용되며 대명사 se가 미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동사와 결합하여 완료태적의미 특히는 시작과 순간적인 행동을 표현한다. 이 경우에도 프랑스어에서는 완료태적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분석적완료시칭을 사용한다.

예: Il a commencé à manger. (그는 먹기 시작하였다.)

조선어 《먹기 시작하다》에서 《시작하다》는 바꿈로 《기》를 가진 동사의 형태와 결합하여 행동의 시작을 나타내며 《시작태》의 의미인 완료태적의미를 표현한다.

일회태를 표현하는 완료태적의미는 프랑스어에서 《갑자기 그 어떤 행동을 한번 수행하는》 행동의 양상을 나타내기때문에 동사에 일회태의 태적의미를 부여하는 d'un

coup, tout à coup, en un moment, un moment, une minute, une seconde, un instant, soudain, à l'instant, en un clin d'oeil, bientôt, tout à coup, tout de suite, tout à l'heure 등과 완료시칭들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례: Il est parti tout à l'heure. (그는 방금 떠났다.)

Il a repoussé d'un coup son voisin. (그는 자기 옆사람을 툭 밀쳤다.)

조선어에서는 동사에 일회태의 태적의미를 부여하는 《툭》 혹은 《툭》, 《정충, 깡충》 등과 같은 부사들을 동반하여 표현한다. 《툭 밀치다》에서 부사 《툭》 혹은 《툭》 등은 《갑자기 그 어떤 행동을 한번 수행하는》 행동의 양상을 나타내기때문에 동사에 《일회태》의 태적의미를 부여하며 완료태적의미를 표현한다. 《정충 뛰다》에서 부사 《정충, 깡충》 등은 《한번 힘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을 나타내며 동사에 《일회태》의 태적의미를 부여하면서 완료태동사와 대응하게 된다.

미완료태적의미에는 지속적인 태적의미, 점진적인 의미를 가지는 태적의미,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는 태적의미 등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어에서는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이 미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동사시칭들과 결합하여 미완료태적의미를 표현한다.

일정한 순간 혹은 시간흐름과정에 지속되는 태적의미는 일정한 시간내에 수행되는 지속적이며 끊임없는 행동과정을 표현한다. 즉 행동은 이미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일정한 순간을 거쳐 계속 미래에로 지속되고있다.

프랑스어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행동은 미완료태적의미를 가지는 모든 미완료시칭들과 특히는 완곡적표현구 《être en train de + 미정형》, 《être + 현재분사》를 통하여 표현된다. 이 구들은 순수 지속성을 가지는 행동을 표현하므로 완료태시칭들인 단순과거, 복합과거, 섰과거, 대과거들과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의 시칭형태만으로써는 태적의미를 표현하지 못하는 조선어에서는 토와 보조동사의 결합 《-고+있다》로써 일정한 순간 혹은 시간흐름과정에 지속되는 행동을 표현한다. 실례로 《먹고있다》에서 《있다》는 주로 《-고있다》형으로 쓰이면서 앞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진행태》의 태적의미를 가지며 프랑스어에서 미완료태에 대응한다. 그리고 현재지속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명사 《-중》을 써서 《그 무엇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나타내어 진행태의 태적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규정하는 없음형의 동사가 프랑스어미완료시칭의 태적의미에 대응한다.

례: Ils se parlaient l'un avec l'autre.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있었다.)

Il marche dans la rue. (그는 길을 걸어가고있다.)

Il est en train de lire le roman. (그는 소설을 읽는 중이다.)

조선어에서 현재순간의 지속성은 자주 현재시간형태 《ㄴ/는》을 사용하여 행동의 진행과정을 표현하며 구체적인 문맥속에서만 태적의미가 명백해지는 미정태동사를 사용하여 과거에서의 지속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례: Il prend le petit déjeuner. (그는 아침식사를 한다.)

Il prenait le petit déjeuner quand je suis parti pour Pyongyang. (그는 내가 평양으로 떠날 때 아침을 먹었다.)

이처럼 조선어에서는 태적의미가 문맥속에서만 구분되는 미정태동사들과 아무런 태적표식이 없는 미래시간로 《겠》도 미래에서 미완료적인 지속태적의미를 표현한다.

예: J'écrirai la lettre quand il étudiera le français dans la bibliothèque. (나는 그
가 도서관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편지를 쓰겠다.)

이러한 문장들에서 지속성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서는 프랑스어와 조선어에서 지속성을 표현하는 상황어들을 보충하여 쓸수 있다.

longtemps(오래동안), sans cesse(끊임없이), toujours(항상), sans trêve(중단없이), sans relâche(쉬지 않고), sans interruption(연속해서), sans fin(끝없이), éternellement(영원히), sans arrêt(쉬지 않고) 등과 같은 상황어와 함께 지속성을 보다 더 강조해준다.

일정한 순간 혹은 시간이 흐르는동안 진행되는 지속상태를 나타내는 지속적인 태적의미는 프랑스어에서 《상태동사 + 전치사 + 명사》구조에 의하여 표현된다.

예: Il reste dans la classe. (교실에 남아있다.)

또한 프랑스어에서 끝난 행동의 지속적인 상태는 동사의 피동형과 《상태동사 + 타동사의 과거분사》와 같은 완곡적표현구로 표현된다.

예: La fenêtre était ouverte. (문이 열려져있었다.)

La fenêtre restait ouverte. (문이 열려져있었다.)

La mère demeurait déjà réveillée. (어머니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있었다.)

우의 실례에서 과거분사는 행동의 결과를 표현하며 미완료태지속시칭은 결과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조선어에서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선행한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에 《-아/-어/-오 + 있다》를 붙여 표현한다. 조선어에서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는 첫째 구성성분인 《열려져》, 《깨여》는 선행한 행동의 수행과 이 행동의 결과로서의 일정한 상태의 발생을 나타내며 둘째 구성성분인 《있다》는 지적된 순간 혹은 시간내에 그 상태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을 표현한다.

현재로 향하여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진행태》는 묘사를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행동의 줄거리를 이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미완료지속동사 + 미완료시칭》, 《미완료지속동사 + 완료시칭》으로 표현된다.

예: Il lisait le roman à partir de la deuxième page.

Il a lu le roman à partir de la deuxième page.

첫째 문장에서 동사는 읽어온 현상자체를 펼쳐보듯이 묘사하고 둘째 문장에서 동사는 《이전에는 읽어왔는데 지금은...》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있으면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어나간다.

조선어에서는 선행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아/-어/-오+오다》를 붙여 주어진 순간까지 지속되는 태적의미를 표현한다. 실례로 《먹어오다》에서 동사 《오다》는 동사의 《아, 여, 어》형과 결합하여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로 향하여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어 《진행태》의 태적의미를 가지며 미완료태와 대응한다.

예: 《그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왔다.》(진행태)

Ils surmontaient toutes les difficultés.

주어진 순간에 지속되면서 미래에로 향해진 행동 혹은 상태의 태적의미는 과거의 그 어떤 순간에 시작되어 현재도 지속되고 미래에로 향하는 과정의 지속을 표현한다. 프랑스어에서는 《미완료지속동사 + 미완료시칭》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례: Il surmonte les difficultés. (그는 곤난을 극복해나간다.)

또한 완곡적표현구《aller(s'en aller) + 현재분사》, 《être en voie de + 미정형》으로 표현될수 있다. 이 경우에 미래에로 향하는 단순한 지속이 아니라 점진적인 지속행동을 표현한다. 점진적인 지속은 toujours plus, toujours moins, progressivement, de plus en plus, de moins en moins, graduellement, moinsamment과 같은 단어들과 미완료시칭이 결합하여 나타낼수도 있다.

례: La production va croissant. [생산이 장성한다(장성해간다).]

조선어에서 이 태적의미는 선행한 행동(상태)을 표현하는 동사에 《-아/-어/-오+가다》를 붙여 표현한다. 이때 선행한 동사는 행동(상태)이 벌써 시작되었다는것을 표현하며 동사 《가다》는 미래에로 향한 과정을 표현한다.

일정한 행동이 여러번 반복되면서 지속되는 행동은 프랑스어에서는 각이한 상황어들과 미완료태시칭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상황어 tous les jours, chaque jour, tous les matins, systématiquement, périodiquement, habituellement 등이 문장에 쓰여 규칙적인 반복을 나타내며 fréquemment, souvent, parfois, quelquefois, de temps en temps, par intervalle, par intermittence 등은 불규칙적인 반복을 나타낸다.

례: Il voit chaque jour le camarade Kim. (그는 김동무를 매일 만난다.)

Il voit souvent le camarade Kim. (그는 김동무를 자주 만난다.)

프랑스어에서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행동은 《avoir coutume de + 미정형》, 《aimer à + 미정형》 등과 같은 완곡적표현구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조선어에서는 습관적으로 여러차례 거듭되는 행동임을 나타내는 꾸밈토 《군》이 대응하는것이 보통이다.

례: 《다니군 하다》, 《바느질하군 하다》, 《뛰어다니군 하다》, 《노래부르군 하다》, 《말하군 하다》, 《앉아있군 하다》, 《놓여있군 하다》, 《보이군 하다》, 《듣군 하다》 등

이와 같이 꾸밈토 《군》은 《하다》와 결합하여 습관적으로 여러차례 거듭되는 행동을 나타내어 다회태의 태적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프랑스어동사의 태적의미를 비롯한 프랑스어실천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조선어와의 대비속에서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외국어를 실지로 써먹을수 있게 소유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프랑스어동사, 태적의미